

<푸른 숲을 열면>

-이상, 호박파이, 거리, 6살

마녀가 살 것 같다고 불리는 폐가가 있었다. 덩굴과 이끼가 우쑥 자라 저것이 집인지 덩굴 더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건물. 아, 사람이 사니 폐가는 아닌가? 그 집에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6살>로 추정되는 아이. 아이는 식물을 키워내고, 그 식물로 밥을 지어 먹었다. 아이라고 하기에 그 아이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보통 아이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줄 알던가?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후후 불어 불씨를 살리는 모습은 여느 성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른들도 잘 못해내는 것을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해냈다. 게다가 아이는… 늙지 않았다. 내가 이 성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몇 년 전부터 들었지만, 그게 동일인물이라면 이 아이는 늙지 않는 게 분명하다. 마녀가 살 거 같다고 아무도 다가가지도 못하는 성에 아이가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

나는 몇 번이고 숲을 탐험한다며 아이가 있는 성에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날 보며 싱긋 웃더니 돌연 사라지곤 했다. 마치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 홀려서 같이 성에 들어갈 뻔하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꼭 아이는 그렇게 사람 홀리는 미소를 지어주다가도, 자기가 다치면 꼭 꼭꼭 숨어 버리거나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었다. 어찌 되었든 내가 그렇게 매일 같이 찾아가니 그곳에 아이가 산다는 것과 그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성 밖으로 나왔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아이가 넘어졌고, 그 모습을 본 나는 숨었다. 다가가면, 또 상처를 짚어지고 도망칠 것이 뻔했으니까. 그러자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혼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으아앙’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본 아이의 아이다운 모습이었다. 아이는 어쩌서 혼자일 때야 자신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걸까, 나는 알 수 없는 질문을 되뇌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찾아간 아이의 성에서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돌아가려는 순간 “너 뭐야.”하고 뒤에서 소리가 나타났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찼었다. 아이는 그동안 나에게 웃어주던 모습과 다르게 적대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나는 그냥…”

“나를 왜 따라다니는 거야? 내 공간에 왜 자꾸 침범하는 거야? 너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다가오지도 못하잖아.”

“침범…”

그제야 나는 그동안의 나와 아이의 기묘한 거리감에 대해 생각했다. 적대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대가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의식하기만 하는 거리감. 그리고 그건, 당연히도 아이가 나에게 내어주는 <이상>적인 배려였다. 아이의 성에 불쑥 찾아가 관음하던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것은 우리 성에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게 아니었다. 아무도 못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에 나 혼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자의식. 그게 민망해 나는 그만 도망치듯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창가 책상에 앉아 햇별을 찌고 있는데 웬 다람쥐 한 마리가 다가와 도토리 하나를 놓고 갔다. 이런 일이 또 있네, 하며 도토리를 이리저리 굴리는데, 그만 떨어트려 껍질이 깨지고 말았다. 깨진 껍질 안에는 알맹이 대신 쪽지가 들어있었다.

[영영 멀어지란 뜻은 아니었어. 종종 놀러 와. 맨날 놀러 오는 건 안 돼. 대신 <호박파이>를 구워줄게.]

나는 아이의 변덕에 얼을 차리지 못했다. 성에 다시 가볼까? 아니면 무슨 공공이가 있는 걸까? 아이가 지금 힘든 것이라면? 고민은 끝이질 않았고 며칠 동안 이 문제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정말 아이가 늙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지혜롭지 않겠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문도 없었는데. 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결국 다시 성에 가기로 했다.

성문에 노크하자 아이는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반겼다. 집안에는 갓 구운 파이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올 것을 알기라도 했다는 듯. 아이와 나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침묵 속에서 우유와 파이를 먹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나였다.

“그땐, 미안했어.”

“괜찮아.”

아이의 시원한 대답에 나는 그만 파이 덩어리를 통째로 삼켰다. 그 덩에 속이 막혀 켉켉거렸다. 그런 나의 등을 아이는 토닥여줬다.

“여기는 내가 가꾼 내 공간이야. 남에게 함부로 개방하지 않지만 지나가던 여행객들에게 쉼터 정도는 되어줄 수 있지. 그 때문에 우리 집이 마녀의 성이라는 소문까지는 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너는 계속 나만을 관찰했지? 그건 나에 대한 침범이기도 했어.”

아이의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 나도 네가 궁금해서 친구들에게서 네 소식을 많이 들었어. 나도 미안해.”

나는 어리둥절한 체 괜찮다고 말했고, 아이의 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앉아있었다.

“그래도 네가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야. 옛날에는 내가 영생의 요정이라며 나를 잡아다 약으로 만들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영생에 대한 소문을 내주지 않아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제 이사 가야 해.”

“왜? 언제?”

“음, 글썄, 2주 뒤? 이곳의 기운이 슬슬 바뀌고 있어서 나도 나에게 맞는 곳으로 가야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싶었어.”

나는 급작스러운 전개에 아쉬운 건지, 아쉬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마음가짐으로 떨떠름하게 잘 가라는 인사를 전했다. 아이는 남은 파이를 포장해주며,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성은 안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야 아쉬워졌다. 2주 뒤, 성은 정말로 사라졌고, 다만 덩굴 더미가 동굴처럼 동그랗게 뭉쳐있었다. 그 안에 도토리가 가득 모여있는 걸 보고 나는 나에게 도토리 편지를 써준 아이를 떠올렸다. 좋은 곳으로 갔길, 그 과정이 험난하진 않길.

입 안에서 아이와 함께 먹었던 <호박파이>의 단내가 났다.